2024

추석 가정 예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16~18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중앙교회

예수 사랑하심은(찬 411장 / 새찬 563장)

1절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2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4절 세상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후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찬 460장 / 새찬 301장)

1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추석 연휴 동안 고향(가족)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사랑 추석 명절 가족과 이웃에게 안부를 나눕니다.

둘째 마음 추석 선물을 부모님과 고향 교회에 나눕니다.

셋째 소망 추석 명절 온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

묵 도 ..... **사회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4~5

찬 송 ..... 예수 사랑하심은(찬 411장 / 새 563장) ..... **다함께**

기 도 ..... **가족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우리를 지키시고, 건강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웃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며, 화목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봉독 ..... 신명기 32:7~9 ..... **가족중**

7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8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9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말 씀 ..... **하나님을 기억하라** ..... **설교자**

찬 송 ..... 지금까지 지내온 것(찬 460장 / 새 301장) ..... **다함께**

주기도문 ..... **다함께**

예배 후에는 가족과 다과를 나누며 덕담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전하는 한가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까 를 검색해 보세요

당신이
더 행복해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세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의 험난한 길에서 인도했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난날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파란 초지가 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후 계속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으로서 신음하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종 되었던 나라가 이처럼 크신 능력으로 해방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심을 기억하라.

광야는 황무지였고, 짐승이 부르짖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 많은 백성이 자기 방법과 수단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감싸 주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세상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황무지이자 짐승이 울부짖는 위험한 곳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는 동안 때로 광야와도 같은 곳에서 어려운 일, 힘든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친히 우리 가족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은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었으며,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꿀을 먹었습니다.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는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한가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이러한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함께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모든 일에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